

## 세계 영적전쟁: 신국제질서 그리고 과제와 전망

최바울 (인터콥)

### 0. 도입

1991년 사회주의 체제가 해체되는 과정을 바라보면서 자유진영에 속해있던 많은 사람들은 이제 자유진영이 지배하는 단일체제로서의 세계는 평화로울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에 부풀어있었다. 후쿠야마가 호언했던 이른바 갈등과 반목의 역사의 종말을 기대했던 것이다. 그러나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국제관계를 바라보는 많은 전문가들은 이러한 낙관론적 기대와는 다르게, 세계는 독일과 프랑스가 주도하는 EU, 중국, 인도, 일본, 러시아, 미국 등 새로운 다수의 강자 중심으로 다원화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역사적 관점에서 이 사태를 주시하는 또 다른 연구자들은 이미 유일 초강대국으로 성장한 세계제국 미국에 대하여 새롭게 부상할 반대진영이 누가 될 것인가에 관심을 집중시켰다.

한편 소련 해체이후 서방의 지도자 미국 입장에서 세계의 세력의 다극화를 방지되어야 하며 유일한 초강대국으로써 그 위치를 지키며 팩스 아메리카나(Pax Americana)는 계속 지속되어야만 했다. 또한 미국은 미국의 주도력을 상실한 세계의 평화는 결코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방위군수산업이 미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세계의 평화는 결코 미국의 평화에 직결되는 것을 아니었다. 미국의 입장에서 NATO는 계속 유지되어야하며, IMF나 IBRD는 세계경제의 주도권을 잡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자유의 여신을 숭배하는 미국의 입장에서 '세속적' 자유는 종교적 및 민족적 특수가치를 초월하여 인류공동체의 절대적 보편가치로 자리 잡아야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무엘 헌팅턴이 주장하지 않더라도, 정치체제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고유한 역사 속에서 강인한 저력과 강력한 문화적 흡입력을 가지고 중국대륙에 단일 제국을 지속시켜온 중국적 가치 혹은 유교적 가치는 미국에 있어서 큰 도전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철저히 세속화된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정교분리 사상을 세속화된 서구사상으로 규정하고 배격하면서 이슬람 종교법 샤리아가 지배하는 세계적 이슬람종교공동체, 즉 움마(umma) 건설을 목표로 하는 이슬람종교 세력은 도저히 타협하거나 협상할 수 없는 반문명적 저항세력이 아닐 수가 없다. 보편종교로서 독특한 정치사회 사상 및 세계적 비전을 가지고 서구적 가치와 제도 및 체제에 도전하는 이슬람 종교집단은 보편가치의 세계화를 추구하는 패권적 세계제국 미국에 있어서 어떤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제거되거나 거세되어야할 대상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다.

이란 호메이니의 종교혁명이나 1991년 걸프전쟁은 미국과 이슬람 종교집단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러한 상황에 대한 우리의 막연한 인식을 보다 분명하게 해준다. 이란 지도자 호메이니는 당시의 초강대국 미국과 소련을 동시에 부정하면서 이슬람 종교혁명을 통한 반미, 반소 운동을 전개하였으며, 그 결과 비록 이란-이라크 중동전쟁에서는 패배했으나 이슬람종교는 전 세계에서 폭발적인 종교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다. 또한 걸프전

쟁에서 지하드(Jihad)를 내세우며 대항했던 이라크는 군사적으로 미국에게 패배하였으나 정치적으로는 승리하였다.<sup>1)</sup> 세계제국에 도전하여 이슬람의 가능성을 보여준 이라크 지도자 사담 후세인은 이슬람 세계의 영웅으로 떠올랐으며, 그 결과 전 세계 이슬람 세계에 근본주의 운동의 국제적 네트워크는 확산되고 강화되었다. 9.11 사태 이후 빈 라덴(Bin Laden)의 경우도 그러하겠지만, 그 당시 사담 후세인이 미국의 공격에서 사망했다면 그는 이슬람 세계의 전설적 영웅으로 살아남아 장기적으로는 이슬람 세계의 반서구 저항운동에 큰 정신적 자산이 되었을 것이다.<sup>2)</sup>

9.11 사태 발발 직후 미국은 이슬람 과격 집단에 대한 보복을 천명하고 나섰으며, 급기야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무력공격이 전격적으로 감행하였다. 이러한 와중에 파키스탄에서 대규모 반미 시위가 일어났으며, 이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인도 북부 카쉬미르 지역, 팔레스타인, 이집트, 방글라데시, 나이지리아 등 전 세계 주요 이슬람 국가들 내에 반미 시위가 점점 확산되어 갔다.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미국 예일대 역사학자이며 미래학자인 폴 케네디의 경고는 절묘했다. 즉, 미국의 보복응징은 보복의 악순환으로 이어져, 역사상 미국이 누려온 본토의 평화에 종말을 고할 것이라는 것이다.

미국 정보기관들은 알 카에다(Al Qaeda) 조직이 전 세계 30개가 넘는 국가에 방대한 조직망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팔레스타인의 하마스, 이집트의 무슬림형제단(MB), 필리핀의 아부사야프, 소말리아의 알 이티하아드, 인도네시아의 제마 이슬라미(JI), 체첸 이슬람 반군 등 이슬람 무장조직과 연계되어 있다고 발표하였다. 바야흐로 국제화된 이슬람 저항운동의 실상을 세계인이 목도하게 되었다.

한편 작금의 이러한 현상을 극단적 종교 세력이 자행한 일시적인 테러로 축소 평가하는 경향이 있는가 하면, 반면 소비에트 체제 해체 이후 세계 국제질서의 재편과정에서 발발한 종교와 문명을 기축으로 하는 새로운 냉전(New Cold War)<sup>3)</sup> 질서의 표현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수천 년 전 고대 메소포타미아 출신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시작되어 두 이복형제 이삭과 이스마엘 사이에 시작된 형제갈등의 지구적 팽창을 목도하며 그 추이를 예의 주시하는 기독교인들도 적지 않다.

본 발표에서는 소련 해체이후 재편되는 경제적 자유주의를 기축으로 하는 신국제질서와 9.11 사태 이후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서구문명 대 이슬람문명의 대결구도와 그

1) Bassam Tibi, *The Challenge of Fundamentalism*,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8, p. 16.

2) 미국은 당시 사담 후세인을 죽이거나 제거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중동을 위협하는 반동 세력이 제어된 상황에서 사우디아라비아나 쿠웨이트에 미국을 주둔시킬 명분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을 지원하고 석유자원 확보를 통해 미국의 국익을 지키기 위해 미국은 미군 주둔을 통해 중동을 장악하길 원했다. 또한 독일이 주도하는 EU에게 동구유럽을 포기해야만 했던 미국은 중장기적으로 볼 때 전통적으로 동방정책을 추구해온 독일이 주도하는 EU로부터 중동의 지배권을 계속 보호하기 위해서 중동 내 미군 기지화는 매우 중요한 미국의 세계경영 전략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의 전략은 장기적으로 세계 57개국 이슬람 세계의 반미감정을 고조시켜 장차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리더십 행사를 더욱 어렵게 할 것이다. 이슬람종교를 완전히 뿌리 채 뽑지 않는 한 그러할 것이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세계제국이 무력으로 일반화된 세계적 종교세력을 완전히 거세한 사례는 없다.

3) Mark Juergensmeyer, *The New Cold War? Religious nationalism Confronts the Secular State*,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3, p. 1

의미를 살펴보고 서구문명의 세계화 혹은 서구의 세계화(Globalization of the West)에 따른 인류공동체의 현상과 추이를 가름해 보고자 한다.

### 1. 서구문명과 신자유주의

1991년 소련이 해체된 이후 미국을 위시한 G7 국가들은 GATT에 이어 UR을 대체할 새로운 세계기구 구상에 들어갔다. 그 결실이 1995년 초에 출범한 WTO이다. WTO는 지구적 자유시장 단일 경제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미국이 WTO를 통해서 지구적 자유시장 경제체제의 구축을 위해 여타 국가들에 대하여 개방을 요구하는 설득하는 논리는 자유주의에 근거한 것이다. 지구적 규모의 경제적 자유주의 체제 구축만이 세계의 번영을 이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지구적 단일 자유시장만이 지구적 무한 경쟁을 가능케 하여 경쟁을 통한 발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요약하면 첫째는 인류의 미래는 인간의 능력에 달려있다는 것, 둘째는 인간은 경쟁을 통해 발전한다는 것, 그리고 셋째는 이러한 경쟁이 지구적으로 가능하기 위해서는 지구적 단일 시장구축이 필요불가결하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것은 자유주의와 자본주의의 세계 지배를 의미하는 것이다. 미국은 이러한 가치, 즉 자유주의와 자본주의는 인간 공동체, 인류공동체의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가치요 운영원리가 되어야 된다고 믿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무한 자유경쟁 속에서 경쟁력이 없는 개인과 기업은 정리되고 퇴출되어야 한다. 그것만이 개인의 경쟁력을 높이고 기업의 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1997년 말 한국과 동남아시아가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IMF에 절대 의존하는 경제난국에 빠지자, 서방 언론은 아시아의 위기의 원인은 경제 논리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데 있다고 앞 다투어 주장했다. 아시아 경제위기는 다름 아닌 소위 “아시아적 가치”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라는 주장이다.

1980년 대 이래 유럽이 실업과 경제 침체를 벗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을 때 동아시아, 아시아의 용들은 급성장을 거듭하며 기세 등등 글로벌 경제의 중심축으로 부상하기 시작하였다. 그 때는 아시아 경제발전을 놀라움으로 바라보며 경탄하던 서방 언론이 아시아 경제 위기가 도래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제기 한 것이 가치(value)의 문제이다. 서방의 언론들은 아시아적 가치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아시아적 가치를 포기하지 않고는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회복과 번영은 불가능하다고까지 주장하였다. 이러한 서구인들의 주장은 서구 사회에 오래 도란 지속되어온 근대화이론(Modernization Theory)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이념의 정체가 경제적 정체를 초래한다는 막스 베버(Max Weber)의 주장에 근거한 것이다.

이러한 논쟁은 서구적 가치와 아시아적 가치 논쟁 혹은 보편적 가치는 존재하는가 라는 철학적이고 문화인류학적 논쟁의 양상으로 발전하였다.

그러면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문제들이 있다. 진정 아시아적 가치는 그 한계에 도달한 것인가? 서구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서구적 가치가 더 우월한 것이며, 서구인들이 지상의 가치라고 주장하는 <자유>가 인류 공동체가 추구해야할 보편적 가치가 될 수 있는 것인가? 이에 대하여 대부분의 아시아 지식인들과 정치 지도자들은 크

게 반발하고 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 될 수 있다.

첫째, 보편적 가치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각 문화집단마다 그들의 고유한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 간주되고 있는 민주, 자유의 개념조차도 유럽과 아시아가 동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아시아적 가치를 강조하는 지식인들은, 집단을 개인에 앞서 생각하는 동양 사회에서 집단보다 개인을 우선 시하는 서구적 가치에서 출발한 서구적 자유 개념이 동일하게 적용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둘째, 서구적 가치가 아시아적 가치보다 결코 더 우월하지 않다는 것이다. 모든 민족 집단과 문화 집단은 자연적, 지정학적, 사회 문화적 환경과 역사적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지구촌 어느 지역에서 성공적으로 적용된 가치가 다른 지역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서구적 가치를 보편적 가치로 주장하는 서구의 입장은 세계주의(globalism) 입장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반해서 보편적 가치를 부인하는 아시아인의 입장은 민족주의 혹은 특수주의라 할 수 있다.

21세기는 자유주의 및 보편주의를 세계에 수출함으로써 그들의 세계주의적 지배권을 장악하려는 서구와 특수주의를 주장하며 이에 대항하는 비서구 사이에 가치논쟁, 갈등, 대립이 가속화 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하여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 많은 의견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인간에 의해 주조된 어느 가치나 사상이 모든 인간의 사고와 행위를 지배하는 보편적 가치로 강요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우리는 <평등>을 강조한 사회주의 사상이 어떻게 소련 공산권에서 하나님의 형상들을 왜곡시켰는지를 잘 알고 있다. 지구촌 평화와 번영은 오직 하나님의 가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우리 속담에도 토리 키재기라는 말이 있다. 지구촌에 많은 민족, 문화 공동체가 있다. 그들 각자의 주장과 가치에 대한 평가는 상대적일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가치만이 유일하고 보편적이기 때문이다.

## 2. 고대 그리스 신(神)의 세계 지배

지구적 자유시장 경제체제 구축, 이것이 미국이 구상하는 유토피아요, Pax Americana 비전의 실현이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이것은 미국의 야망이 아니라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Polis) 건설 과정에서 그 두각을 드러냈던, <마(魔)의 동맹> 자유주의(Liberalism)와 자본주의(Capitalism)의 세계 제패 야망이었다.

에게 해를 중심으로 발달한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들은 수많은 섬과 해변에 산재해 있었다. 이전 크레타 섬에서 발달한 크레타 섬의 소왕국은 경제적 부를 소유한 통치자에 의해 다스려 지고 있었다. 경제력과 정치권력은 이곳에서는 처음부터 동일시되었던 것이다. 후에 미케네 인들이 남하해서 내려오면서 크레타문명은 파괴되었으나 크레타의 경제 중심적 문화와 미케네 인들의 전사적(戰士的) 문화가 통합되면서 그리스 문명의 원형을 이루게 된다.

한편 후에 발달한 도시국가들 역시 유사한 형태로 발전하였다. 수많은 섬들로 형성된 지형적 조건 때문에 그리스와 에게 해에서는 오리엔트와 같이 방대한 영토를 통치하는

제국 및 전제군주가 등장하지 못했다. 각 섬마다 특종 작물이 재배되고, 이러한 농산물이 상호 교환되면서 삶이 영위되는 그리스에서는 각 사람의 존재의미가 경제적 특성화에 의해서 분명히 규명되고 있었으며, 사회 집단 및 도시국가 내에서 각 사람은 자율적 참여에 의해서 공동체 운영에 기여하고 있었다. 외세의 침략이 있을 경우, 각 사람은 자신들이 비용을 감당하여 무기를 사고, 자율적으로 전쟁에 참여하였다. 따라서 사회에서 각 사람의 존재의미와 역할은 강조될 수밖에 없으며, 모두가 자유인이며 공동체는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자유인들의 민주적인 의사결정에 의해 운영되었다.

이러한 환경에서 개인의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은 처음부터 모든 사람에게 중요하게 인식되었다. 경제력을 가진 자들이 공동체에 대한 자발적 기여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자유가 보장되었던 것이다. 후에는 보다 많은 경제력을 가진 자들은 더 많은 기여를 할 수가 있었으며, 그에 따라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발언권은 점차 강화되었으며, 경제적 부유층이 지배층으로 부상하였다. 자유주의와 자본주의는 이렇게 발달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등장 이후 기독교가 전파되면서 그리스 세계는 급변하였다. 모든 사람이 신 앞에 평등하며, 각 사람은 지체의 한 부분으로 존재하며 역할한다는 기독교의 가르침은 기존 그리스 사상에 별 문제가 되지 않지만, 신중심주의와 성령 강림 후에 나타난 바, 모든 물질을 필요에 따라 나누어 갖는 공산주의적 공동체주의는 물질 중심적 그리스인들에게 매우 곤혹스러운 것이었음에 틀림없다. 신의 의지가 강조되는 기독교에서 인간의 의지와 자유가 강조되는 인본주의와 물질 중심주의적 자본주의는 설자리가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기독교의 강령은 로마교회 역사를 통해 적어도 사상적 및 원리적으로나마 지속되었다.

그러나 종교개혁이후 칼빈주의(Calvinism)는 이러한 강령과 원리에 변화를 초래하였다. 노동이 신성한 예배로 강조되며, 경제행위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이자지급 문제가 성경적이라는 칼빈의 해석은 중북부 유럽 사회에 경제적 활력을 불어넣었다. 이에 반해서 여전히 노동의 가치를 폄하하고, 이자 지급 문제를 부도덕한 것으로 취급하는 카톨릭 중심 남부유럽은 여전히 경제가 침체를 벗어나지 못했다. 칼빈의 후예들이 주도하는 지역에서는 이자 지급이 하나님 안에서 정당화되자, 자금은 돌기 시작하였고 경제는 활성화 된 것이다. 급기야 자본주의는 정당을 인정받게 되었고 무서운 힘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막스 베버가 이미 주장한 것처럼 근면하고 자본주의를 원리적, 실천적으로 지지하는 칼빈주의적 프로테스탄티즘은 서구 자본주의 및 물질주의 발달에 기여한 최대의 공신이 된 것이다.

종교개혁은 한편으로는 카톨릭의 집단주의에 저항하면서 개체주의를 발전시켜 결국은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을 최대의 가치로 보는 프랑스 혁명을 분출시켰으며, 한편으로는 근면한 프로테스탄트의 실업인 장로들의 헌신적 노력에 힘입어 인류공동체를 과학주의와 테크놀로지의 노예로 전락시키는 세계의 도래로 이어지는 산업혁명을 촉발시켰다.

서구세계는 “빛은 성경으로부터”가 아니고 “빛은 이성으로부터”를 주창하는 계몽주의를 거쳐 인본주의의 여러 형태들로 급속히 발전하였다. 절제되지 못한 인간중심적 세계관은 서구인들의 마음과 삶에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왜곡시키거나 하나님을 거세시켜

버리고 말았다. 진화론은 그 정절을 이루었으며, 다윈주의는 절대적 진리로 자리 잡게 되었다. 과학주의는 합리주의를 부각시켰으며, 과정보다는 목적을 성취하는 방법이 중요시되면서 <합리성> 및 <효율성>은 최대의 선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결국 인간은 보람있게 살기 위해서 돈을 번다고 말하지만 돈, 즉 도구의 노예로 전락해버리고 만 것이다.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한다고 하면서 <도덕적 가치>보다는 합리성과 효율성이 최대의 가치가 되어 버린 것이다.

### 3. 자본주의와 자유주의 마(魔)의 동맹

자본주의의 만연으로 인해 물질주의는 빠른 속도로 서구 사회에 파급되었고, 산업혁명을 먼저 경험한 영국 및 프랑스 등 서구 제국의 세계 진출은 민족의 부기와 영광을 위해 다른 민족을 지배하고 착취하는 제국주의로 발전하였다. <역사적 자본주의/ 자본주의 문명>을 저술한 임마누엘 월러스타인(Wallersteine)이 절묘하게 지적한 것처럼 본래 자본주의는 팽창주의며, 자유주의며, 세계주의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돈이 되는 곳이면 국경과 영역을 초월해서 어디든지 가는 것이 자본주의인 것이다. 그리고 돈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하는 것이 자본주의이다. 자본주의는 그 성격상 결과중심주의로서 과정과 방법에 있어서 윤리와 도덕성은 사실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자본주의의 부상에 대해서 가장 먼저 저항한 사람은 칼 마르크스였다. 그는 자본주의를 최초로 <물질주의(materialism)>라고 규정하고 강력하게 비판하였다. 자본주의는 잉여가치를 목적으로 만물을 상품화시키는 것으로 만물의 영장인 인간까지도 노동력으로 전환하여 상품화시켜 버리고 만다는 것이다. 사람이 상품화됨으로써 노동력이 낮은 노인이나 여성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은 심화되었으며, 결국 여성들로 하여금 육체미의 상품화, 성의 상품화를 가속화 시켰다. 이러한 자본주의와 물질주의를 선봉에서서 확산시킨 사람들은 북부 유럽의 프로테스탄트 교회의 장로들이었다. 마르크스와 그 동료들은 만물의 상품화와 빈익빈 부익부의 자본주의 문명 및 물질주의 문명을 주도하고 있는 프로테스탄트 교회 장로들을 비난하였다. 왜냐하면 기독교 기업인, 지식인, 고위 관료 등이 오늘날 교회의 리더십을 장악한 것처럼 당시에 부르주아 장로들이 프로테스탄트 교회들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이러한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이러한 세속적 물질주의와 불평등주의를 확산시키고 주도하는 주범 프로테스탄트 교회를 해체시키는 것이라고 보았다. 자본주의를 퇴출시키기 위해서 기독교 교회는 해체되어야 했던 것이다. 포에르바하(Feuerbach)는 경제적 약자들의 심금을 울리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하나님이 사랑이십니까? 아닙니다! 사랑이 하나님입니다.>

작금의 세태는 지식의 상품화로 인해 인간 교육을 담당하던 존경받는 스승은 지식 노동자로 전락하였고, 대학은 돈이 되는 지식을 생산하는 공장으로 변하였다. 학생들은 더 이상 돈이 되지 않는 지식에는 관심이 없으며, 인문학은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아직도 상품화되지 않는 영역이 어디에 있는가를 찾아내어 상품화시키는 벤처 기업가에 대한 칭송은 자자하다. 자본주의의 지상명령은 모든 것을 상품화시켜 팔아먹으라는 것이다. 토지가 상품화된 지는 오래며, 물이 상품화되고, 인간의 육체의 장기가 상품

화되고 있다. 모든 두뇌들이 <모든 것을 상품화시켜 버려라>라는 자본주의 명령에 때로는 목숨까지 바치는 위험을 감수하면서 까지 분주히 순종하고 있는 것이다.

영혼을 상품화시키는 일은 오래된 상술이다. 안타깝게도 하나님도 상품화시켜 팔아먹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는 큰 논쟁거리가 되지 않는다. 고대로부터 인간계를 지배하기를 원했던 오리엔트의 농경의 신은 일찍이 예수님께 도전한 적이 있었다.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는 사단의 도전이다. 자본주의의 위력은 인간 능력의 척도를 돈을 버는 능력으로 전환시켜 버렸으며, 모든 인간을 그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자본주의 세계체제 속에 가두어 버렸다.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사단의 도전에 저항할 힘을 현저히 상실해 버렸다.

한편 자유주의는 20세기 초에 서양의 대부분의 기독교 지성사회를 세속화시켜 버렸다. 기독교 대학으로 출발한 하버드, 프린스턴 등 수많은 기독교 대학들이 자유주의의 도전을 이기지 못하고 무너지고 말았다. 그러나 이러한 자본주의 및 자유주의에 거세게 반항하고 일어난 세력이 공산사회주의이며, 레닌이 주도한 소비에트 체제였다.

1991년 소비에트 체제는 해체되었으며, 고대 그리스 신(神)이요, 자유주의와 자본주의 <두 얼굴을 가진 짐승>은 유아독존으로 자신을 세계의 지배자로 공공연히 선포한 것이 1995년 WTO의 출범이다. 세계는 자유주의 원칙 아래 자본주의 사회로 총체적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이다. 자유와 평등을 주창한 프랑스 혁명 이래로 세계는 자유냐 평등이냐는 두 세력으로 나뉘어 경쟁하고 갈등하였다. 그러나 자본주의와 합작한 자유주의가 드디어 승리를 거두게 된 것이다. 자유주의의 토양을 벗어나서는 자랄 수 없는 숙명적인 관계에 놓여 있는 자본주의는 역사적으로 이와 같이 자유주의와의 <마(魔)의 동맹> 관계 속에서 발전을 거듭해 왔다.

자본주의와 자유주의의 지배하에서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 인간과 자연의 관계, 인간과 인간의 관계는 무참히 단절되고 파괴되었다. 신을 잃어버린 인간은 어둠 속에서 두려워하고 있으며, 환경 파괴와 인간성 파괴의 결과로 인간들은 신음하며 새하얀 고독을 즐겨야만 하는 운명에 놓이게 되었다. 지금 돌이켜 보면 자유주의는 인간계에서 <악(惡)의 꽃>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유혹해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것이다.

자본주의의 세계지배 현상은 성경에서 말세의 징조로 이미 언급되어 있다. 디모데 후서 3장 1-5절에서 나타난 것으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지금 세계는 경제 지상주의가 지배하고 있다. 범세계화의 원동력도 이러한 경제지상주의에서 비롯된 것이다. 절제하지 못하는 인간의 욕망은 돈이라는 매개를 통해 표현되면서, 자기 사랑의 이기주의와 돈을 사랑하는 물질만능주의는 동의어로서 사용된 지 오래다. 드디어 인간은 돈을 위한, 돈에 의한, 돈의 인간으로 변해가고 있으며, 경제인(homo economicus) 혹은 경제 동물로 전락해 버린 것이다.

지금 사람들은 돈이 있는 곳이면 그 어느 곳이던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다.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의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은 지리적 장애뿐만 아니라 언어와 문화와 민족의 경계를 넘어 세계를 하나로 만들어 가는 것이다. 세계 인류는 무서운 속도로 인종과 민족 및 문화를 초월한, 하나의 언어, 하나의 세계문화를

가진 경제인으로 재창조되어 가는 것이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아직도 성경을 읽는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성직자 및 사역자들조차도 이러한 지구적인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 4. 세계화와 사회적 약자

자본주의 및 자유주의가 주도하는 세계화가 가속화되면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자연계 밀렵에서나 볼 수 있는 약육강식의 무자비한 무한경쟁 체계가 지구적으로 구축되고 있다는 점이다. 자유경쟁 논리는 경쟁력이 낮은 국가와 기업 및 개인은 경쟁의 낙오자로 전락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약자들이 자신을 호소할 논리와 대상이 없어져 버렸다는 것이다. 정부는 공정한 관리자로 남아야 하며, 경쟁자들의 어느 편을 들어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 자유 경쟁 속에서 능력에 따라 살게 하라는 것이 자유주의가 제시한 절대 원칙이다. 기업 구조조정에서 해고된 노동자는 근무성적을 평가받고 점수가 낮아서 해고된 것이다. 능력이 없어서 동료와의 경쟁에서 낙오된 것이다. 공정한 경쟁 하에서 이루어지는 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은 그 어디도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할 수 없다. 자유주의의 지배하에서 사회적 약자는 자신을 호소할 논리가 없는 것이다. 능력이 없어서 탈락한 자는 억울함을 위로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게으름을 비난받아야 하는 것이다. 사회적 약자는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게으르고 능력없는 자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서 부모로부터 충분한 재산과 권력을 이양 받은 상속자는 경쟁의 출발점이 다르다는 항의가 빗발치지만, 자유주의에서는 이것을 제약할 어떠한 논리도 존재하지 않는다.

더군다나 세계화 시대에 국민국가의 주권이 약화되고, 중앙정부의 권력 행사가 제한을 받으면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중앙정부의 힘은 현저히 제약받고 있다. 이제 사회적 약자들은 자신을 호소할 대상도 상실해 가는 것이다. 세계화 시대에 사회적 약자 및 소수민족 및 약소국가 등은 하나님 이외에 자신을 호소할 대상을 찾을 수가 없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계 선진국에서는 세계화가 가속화되었으나, 제 3세계 후진국에서는 세계화에 저항하며 민족주의 운동이 가열되어, 얼마 되지 않는 피자의 조각을 차지하기 위해 민족과 민족의 갈등은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경제 대국에의 종속 상태에서 저발전의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제 3세계 사람들은 자신들의 종교로 회귀하는 근본주의 현상은 가속화될 것이며, 지배 문명권과 비지배 문명권 사이에 종교적 뿌리를 둔 문명의 갈등은 심화될 것이다. 서구(The West)와 비서구(The Rest)의 갈등은 분배정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더욱 더 심화될 것이다.

#### 5. 세계화에 대한 기독교적 조명

성경에서 마지막 시대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14절에 잘 나타나 있다. 말세에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으며, 도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때에 거짓 선지자들이 득세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리라는 것이다. 지금 세계는 경제적 풍요 속에서도 그 어느 때보다 굶어죽어 가는 사람이 많으며, 거대도시들을 공략하는 지진은 그 어느 때보다 빈



도 높게 계속되고 있다. 세계에서 매년 생산되는 농산물은 약 80억 인구가 먹을 수 있는 양이지만, 세계 60억 인구 가운데 수천 만 명이 기아에 허덕이고 있다. 세계는 이미 20/80 구도로 구조화되어 있어서 세계 인구의 80%가 가져야 할 경제적 권리를 20%가 독점하고 있다.

서구 선진 국가들은 너무 많이 먹어서 체중을 줄이기 위한 다이어트 산업이 가공할 규모로 성장하고 있는데 비해, 아프리카와 일부 아시아 국가들은 기와와 빈곤으로 허덕이고 있는 것이다.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신자유주의 논리 속에서 더욱 더 가속화되고 있으며, 분배 정의의 문제는 심각한 상황에 도달해 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세계는 동일 종교 집단을 중심으로 다원화 블록화 되어 가는 현상이 두드러지며, 제3세계 국가 내에 민족주의는 기승을 부리고 있다. 또한 이슬람을 비롯한 여러 종교에서 근본주의 운동과 종교부흥 운동은 이성주의 및 과학주의를 기반으로 발달한 근대주의(modernism)를 거부하는 포스트모더니즘과 더불어 지구촌에 범세계적인 또 하나의 기류를 형성하고 있다. 소련 해체이후 독립한 중앙아시아 신생 국가들 내에는 새로운 민족국가를 건립하는 과정에서 정부 주도, 관 주도 민족주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가히 민족과 민족주의를 날카롭게 분석한 앤더슨과 홉스봄의 이론의 타당성을 증명하기 위한 좋은 자료가 되고 있다. 우리는 지난 10년 동안 중앙아시아 신생 독립국가들 가운데 확산되어 가고 있는 민족주의 현상을 보면서 민족은 역사적 속에서 공통의 경험을 나누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간다는 앤토니 스미스(Anthony Smith)의 이론보다는 홉스봄(Hobsbaum)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 민족과 민족주의는 국가 엘리트들이 민족영웅을 만들어 내고 민족정신을 창출하여 민족 이데올로기를 조성한 다음 국민교육을 통해 국가 내에 의도적으로 민족주의를 심고 확산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민족은 상상의 공동체(imagined community)이며, 민족주의는 국가 엘리트들에 의해 조작된 하나의 집단 이데올로기인 것이다.

이러한 민족주의에 대해 미국은 왜 그토록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며 보편주의 및 자유주의 확산에 주력하고 있는가? 세계를 하나의 시장으로 만들어 경제적 부를 극대화하려는 절제하지 못하는 죄와 Pax Americana의 세속적 야망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 그것은 미국이 다민족 국가라는 것이다. 만일 세계에 민족주의가 확산되면, 다민족 국가인 미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장기적으로 볼 때 미국도 소련처럼 수 개의 인종 및 민족국가로 해체되거나, 끝없는 인종갈등 및 민족갈등으로 미국의 존립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여기서 각 민족의 문화적 가치와 특수성보다는 인류의 보편성에 강조점을 두고 국제주의 및 세계주의를 강조한 사회주의와 자유주의가 왜 다민족 국가인 소련과 미국에서 크게 발달했는가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민족 및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세계 경영 역시 종족 및 민족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강력히 증거하고 있다: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라, 모든 민족에 복음이 증거되어야 하리니 그 때서야 끝이 오리라".

아무리 장미가 아름답고 좋아하는 꽃이지만, 장미로 가득 찬 정원보다는 다양한 꽃들이 만발한 정원이 더욱 더 아름답다. 어쩌면 이것은 미학의 문제이다. 획일성보다 더

온전한 것은 다양성이다. 더군다나 죄인인 인간에 의해서 형성된 언어의 획일화, 문화의 획일화, 사상의 획일화는 무서운 결과를 낳을 것이다.

지금 우리가 지구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세계화는 서구적 근대화의 연장으로써 서구의 세계화(Westernization of the World)로 이해하여야 한다. 즉, 서구문명의 패권적 세계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다. 서구 물질문명은 지금 많은 논쟁에도 불구하고 전례 없는 황금기를 구가하고 있다. 문제는 국제 NGO들은 서구의 패권주의에 대해 갈수록 저항운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비서구권 국가들 내에 세계화를 주도하는 미국에 대한 반미감정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비서구권 국가 국민들 가운데 확산되고 있고, 세계 지식인들 및 NGO들의 담론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반미주의 현상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대한 저항의식을 반영한 것이다. 작금의 세계화는 주도세력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은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세계기구들과 장치들을 활용하여 세계적 단일 시장경제 체제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세계적 경제대국 미국의 탐욕적인 경제적 팽창주의에 대한 반발의식은 상대적 약소국들 가운데 갈수록 증대되고 있는 것이다.

서구문명의 양 날개, 즉 자본주의 및 자유주의가 주도하는 세계화가 가속화되면서 나타나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자연계 밀림에서나 볼 수 있는 약육강식의 무자비한 무한 경쟁 체제가 지구적으로 구축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구적인 무한 자유경쟁 체제 속에서 태생적인 한계로 인해 경쟁력의 한계를 갖고 있는 국가와 기업 및 개인은 결국 경쟁에서 낙오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가속화되면서 사회적 약자 및 소수민족 및 약소국가 등은 자신의 처지를 호소할 대상을 찾기 어렵게 된 것이다.

9.11 사태 이후 국제관계에서 보듯이 약소국 및 소수민족에 대한 강대국들의 연대는 더욱 더 공고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계 선진국은 세계화 정책을 계속 가속화하겠으나, 개도국에서는 세계화에 저항하는 민족주의 운동이 가열되며, 작은 파이를 나누어 갖기 위한 약소민족들 간의 갈등은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경제 대국에의 종속상태에서 저발전의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비서구권 개도국 국민들 가운데 자신들의 종교로 회귀하는 종교근본주의 운동의 현상은 가속화될 것이며, 지배 문명권과 피지배 문명권 사이에 종교적 뿌리를 둔 문명의 갈등은 심화될 것이다. 한 마디로 신자유주의 세계체제 구축과 더불어 새로운 세계질서가 구조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신국제질서가 지금의 기조로 일정 기간 지속된다면, 상대적 박탈감 및 분배의 문제뿐만 아니라 보편주의와 특수주의, 문화 및 문명 간 차이 등 세계관의 문제로 인해 서구(The West)와 비서구(The Rest)의 갈등은 더욱 더 심화될 것이다.

## 6. 서구문명의 한계와 포스트모던 국제사회

9.11 사태 이후 세계인이 목도한 바와 같이 급진 이슬람세력이 주도하는 반미 및 반서구 저항운동은 극단적이며 또한 국제적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다. 비록 이들 급진세력은 그 수가 많지 않지만 이슬람 세계에 무시할 수 없는 국제적 지도력과 영향력을 행

사하고 있다. 각 이슬람 국가를 장악한 근대주의 집권세력은 자국에 대한 지도력을 가지고 있으나 이슬람권 전체에 대한 국제적 지도력은 급진세력이 주도하고 있다. 최근 이슬람권에서 나타나고 있는 반서구 저항운동의 양태가 과거 국제사회의 다른 유사한 저항적 정치운동 형태들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슬람권의 서구세력에 대한 저항운동이 단순히 중동 걸프사태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의 여파에 기인한 것으로 국제적 이해관계만을 반영한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것이다. 이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비서구 문명 가운데 가장 강력하게 서구문명에 저항하는 집단이 왜 이슬람 집단인가 하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슬람 출범이래 과거 역사 속에서 십자군 전쟁을 위시해서 끝없이 갈등해 오면서 형성된 고질적인 역사적 반목, 즉 역사적 경험에 따른 불신감과 적대감 이외에 더 유의해야 할 것은 서구문명과 이슬람문명이 둘 다 적어도 종교적 배경으로는 그 기초가 유일신 사상에 기초한 보편진리를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성격상 두 집단이 험투교처럼 자국 영토 범주 내에 머물러 있지 않고 적어도 종교 이데올로기로는 전 세계에 대한 자기 종교 세력 확장, 즉 세계화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보편주의 이념을 가지고 세계화를 추구하는 두 진영 간 긴장과 경쟁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이러한 점은 서구문명에 대한 무슬림 엘리트들의 일반적 인식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지난 2-3백여 년 동안 서구 진영에 의해서 주도된 근대화의 결과를 가까이서 보고 평가한 무슬림 엘리트들로서 그 결과에 대한 평가가 매우 부정적이고 확신적이다. 개발지상주의 및 성장지상주의에 입각한 서구적 근대화는 결국 지구적 환경파괴, 인간성 상실, 인간 소외 등으로 이어져 서구적 발전개념으로는 발전의 한계, 성장의 한계에 도달해 있다는 제로섬 성장 개념에 대한 세계 지성사회의 인식을 반영한 것이다. 서구문명이 한계에 도달했다면 그 대안은 무엇인가? 1400년 동안 경쟁관계에 있던 또 하나의 보편문명으로써 세계화 및 세계적 확장을 추구하는 이슬람 문명에 대한 무슬림 지식집단의 기대는 우월감에 젖어있는 서구인들에게는 가히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다.

따라서 서구에 대한 이슬람권의 저항운동은 물질문명에 대한 정신문명의 도전적 성격을 띠고 있다. 미국과 이슬람권의 갈등은 현재 진행되고 있고 또 장래에 있을지 모르는 미국과 중국 혹은 미국과 EU의 경쟁 또는 대립 관계와는 질적으로 다른 것이 되고 있다. 서구문명은 물질문명으로써 그 한계에 봉착해 있다.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포스트모더니즘이 암시하듯 근대성은 그 한계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물질주의, 경제지상주의, 과학지상주의로 묘사되는 근대주의는 인류 공동체가 보편적으로 추구해야 할 진리가 아니고 하나의 이데올로기라는 것이다. 바야흐로 세계는 이데올로기로써 모더니즘을 거부하고 포스트모더니즘 시대를 구현해 가고 있는 것이다. 포스트모더니즘에서 모더니즘이 실증되지 않는 것은 진리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퇴출시켜버린 영성은 매우 중요시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대부분의 종교권에서 확산되는 종교적 근본주의 운동이 암시하듯 세계는 지성에 대한 영성의 반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비종교권에서는 포스트모더니즘, 종교권에서는 근본주의 운동으로 대변되는 새로운 물결은 이슬람 근본주의 운동이 단순히 이슬람 종교에 국한되는 현상이 아니라 범지구적 포스트모더니즘 현상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서구 사회에서 서구문명의 패권적 전성기에 서구문명의 한계와 폭력성을 지적하는 지식인들이 갈수록 증가되고 있다. 또한 패권적 서구문명에 저항하는 집단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슬람 근본주의 운동은 주목을 받고 있다. 여기서 분명히 지적해야 할 사실은 근대 이슬람 근본주의 운동은 근대 서구 물질문명의 역사적 팽창에 따른 대응전략에서 나온 것으로 다분히 총체적 성격을 띠는 문화혁신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서구문명에 대한 대안운동 및 대항운동의 성격이 짙게 내포되어 있다. 이런 점에서 이슬람세력과 서구세력의 갈등은 단순히 힘의 대결로서의 문명의 충돌이기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세계관 대결과 경쟁의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sup>4)</sup>

이슬람주의자들은 갈수록 더욱 더 증대되는 세계의 서구화<sup>5)</sup>, 즉 서구문명의 팽창과 서구세력의 패권주의에 직면하여 그 대응전략을 급진적 노선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서구세력에 대하여 이슬람 개혁을 통해 상대적 우위를 확보하려던 이슬람주의자들은 그 결실이 없게 되자 운동의 방향을 급진적 행동주의로 전환하게 된 것이다. 이는 갈수록 범이슬람주의 운동이 종교근본주의 성격을 강화시켜 나간다는 것이다. 그 종말은 지하드의 확대와 일반화를 통하여 전 세계 프롤레타리아 무슬림의 봉기, 즉 지구적 인티파다(Intifada)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이슬람의 보편원리로써 지하드가 존재하고 압제받는 다수 대중의 존재가 계속될 때, 상대적 박탈감과 피해의식에 사로잡힌 세계 무슬림 대중의 봉기는 세계를 새로운 무질서로 귀착시킬 가능성을 전혀 무시할 수 없다.

## 7. 서구의 세계화와 프롤레타리아 저항운동

역사학자 토인비는 열광파와 헤룻주의에 대해서 논한 적이 있다.<sup>6)</sup> 엄청난 힘으로 몰려오는 새로운 문명의 힘에 직면하여 전통세력들은 두 가지 서로 다른 대응전략을 구사한다는 것이다. 열광파라고 일컬어지는 그룹으로써 더욱 더 자기 정체성을 강화하고 근본주의적 경향을 표출하면서 투쟁하는 그룹과 다른 하나는 헤룻주의적 대응으로써 현실을 인정하고 지배 문명의 힘을 배우고 답습함을 통해서 한계와 난관을 극복하려는 실용주의적 접근을 취하는 그룹이 있다는 것이다. 서구문명의 힘에 직면하여 근대에 이슬람권 역시 두 가지 대응 양상을 나타냈다. 하나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와하비(Wahabi)나 파키스탄의 알 아프가니(Al Afghani) 같은 보수적 범이슬람주의자(Pan-Islamists)나 무슬림형제단(Muslim Brotherhood)이나 알카에다(Al Qaeda) 같은 급진적 근본주의자들이며 또 하나는 터키의 무스타파 케말(Mustafa Kemal)이나 이집트의 무함마드 알리(Muhammad Ali) 등과 같은 이슬람 근대주의자들이다. 근대주의자들은 서구적 근대주의의 산물인 민족주의를 내세워 민족국가 건설과 근대화 및 서구화 노선을 추구하였다. 이에 반해서 범이슬람주의자들은 원시 이슬람교의 원리로 회귀하는 근본주의 노선을 취하였다. 근대주의 민족주의자들은 결국 실패할 것이다. 토인비나 이슬람주의자들이

4) Bassam Tibi, *The Change of Fundamentalism*, 1998, pp.16-17.

5) 아놀드 토인비는 처음으로 “세계의 서구화”라는 용어를 빌어 서구문명의 패권주의적 근대화를 지적하였다. A. Toynbee, *Civilization on Trial*. 1948.

6) Arnold Toynbee, *Civilization on Trial*, 1948.

예견한 것처럼 민족국가 건설이 성공한다고 해도 결국 창조성이 결여된 모방성만의 근대화는 본질적으로 서구화이기 때문에 서구문명과 이데올로기에 종속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열광과들 역시 분투하겠으나 서구문명의 무력 앞에 무참히 쓰러질 것이다. 세계적 제국 미국에 무모한 도전을 한 외로운 전사 빈 라덴의 꼴이 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세계를 제패하고 전 지구적으로 팽팽하게 확장된 서구문명은 자본주의 원리에 따라 성장의 한계에 직면할 것이며, 소수민족, 비서구권 약소국가, 상대적 박탈감을 갖고 있는 중산층, 노동자 농민, 다양한 종교집단 등 주변과 변방의 수많은 심리적 프롤레타리아의 도전에 직면할 것이다. 이러한 도전에 대해서 문명의 중심에 선 세계적 제국은 자만심에 사로잡혀 세계의 자유와 평화라는 이름으로 무자비하게 폭력을 행사할 것이다. 실상 그들은 자신들의 자유와 평화를 위하여 세계의 자유와 평화를 희생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심령이 가난한 변방의 지구촌 프롤레타리아들은 패권을 장악한 세계적 제국이 명분으로 내세운 세계의 자유와 평화가 진정으로 세계를 위한 것이 아니고 제국의 자유와 평화를 의미한다는 사실을 간파하고 매우 냉소적이 될 것이다. 결국 역사의 법칙이 말해주듯 중심을 장악한 문명은 자체 모순과 한계로 인해 돌연히 쇠퇴할 것이며, 변방에서 새로운 대안이 등장할 것이다. 팩스 로마나를 구가하던 세계적 제국 로마의 전성기에 로마의 변방 중의 변방 팔레스타인에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이 새로운 꿈과 비전을 바라보며 범민중 풀뿌리 운동을 전개하며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처럼. 그 때 문명의 중심 세력들은 “프롤레타리아들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대표되는 나사렛에서 무엇이 나올 수 있을까?”라고 냉소했던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다.

20세기 최대의 역사학자 토인비와 문명의 충돌을 예언한 사무엘 헌팅턴이 이미 서구 세력에게 경고했던 것처럼 서구문명은 겸손하며 절제하지 못하는 이기심과 탐욕을 버려야 한다. 이슬람 문명과 비서구권의 심리적 프롤레타리아의 도전에 직면한 서구문명과 그 문명의 대변자 세계적 제국 미국은 동양 문명권에서 늘 강조해온 바로 그 강자(强者)의 덕(德)을 배워야 한다. 변방 프롤레타리아 집단에 대한 세계제국의 횡포는 중단되어야 한다. 그리고 상대적 박탈감 속에 허덕이고 있는, 무슬림 집단, 소수민족, 약소국, 빈국, 사회적 약자들을 포함하는 지구촌의 곳곳의 심리적 프롤레타리아 집단들을 진심으로 도와줌으로써 지구적 분배정의가 실현되도록 헌신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문명의 충돌을 막으며 문명의 공존을 지속시키고, 팩스 아메리카나(Pax Americana)를 구가하는 세계적 제국 미국의 급속한 쇠퇴를 막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다. 세계 57개 이슬람 국가의 무슬림들이 지하드의 기치를 높이 들고 봉기, 즉 인티파다에 나서는 것을 막는 방법은 강자의 폭력이 아니라 강자의 자비밖에 없다.

### 마치는 말

지금 서구 선진 국가들은 너무 많이 먹어서 체중을 줄이기 위한 다이어트 산업이 가공할 규모로 성장하고 있는데 반해, 아프리카와 일부 아시아 국가들은 기와와 빈곤으로 허덕이고 있다.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신자유주의 논리 속에서 더욱 더 가속화되고 있

으며, 지구적으로 분배정의 문제는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세계는 동일 종교 집단을 중심으로 다원화 블록화 되어 가는 현상이 두드러지며, 비서구권 국가 내에 종교적 민족주의는 기승을 부리고 있다. 또한 이슬람을 비롯한 여러 종교에서 근본주의 운동과 종교부흥운동은 이성주의 및 과학주의를 기반으로 발달한 근대주의를 거부하는 포스트모더니즘과 더불어 지구촌에 범세계적인 또 하나의 기류를 형성하고 있다.

이슬람 근본주의 운동은 한 시대에 지나가는 단순한 종교적 및 정치적 저항운동을 넘어서 문명사적 현상이며, 패권적 서구문명에 대한 문명사적 도전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또한 이슬람근본주의 운동은 비록 지금은 이슬람권에 한정되는 듯하지만, 그 성격상 이것은 단순히 이슬람권 프롤레타리아 저항운동을 넘어 비서구 국가들의 저항 민중운동의 일환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수세기 동안 물질문명의 폭력에 시달리며 삶의 의미를 상실하고 심리적 프롤레타리아로 전락하여 목말라 하는 인류공동체는 영적 부흥을 통한 영성회복을 갈구하며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공급해줄 새로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세계화 시대에 세계환경은 놀라운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또한 세계의 문제가 국가 및 한 지역의 문제요, 한 지역의 문제가 세계의 문제가 되었다. 세계는 한 덩어리로 움직이는 세계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이러한 시대에 교회는 변화하는 세계선교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왜냐하면 교회는 한편으로는 세상을 꾸짖지만, 또 한편으로는 세상을 인격적으로 설득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자유주의 및 자본주의 등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이데올로기에 대해 그 문제점을 파악하고 철저히 대항해야 한다. 세계화의 허와 실을 기독교적 관점에서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자유주의의 세계 지배에 대항하면서, 성장의 한계 및 경쟁의 한계를 분명히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실천해야 한다.

분배정의, 빈곤 및 환경 문제뿐만 아니라, 세계의 언어를 하나로 통합하려고 하는 언어제국주의, 미국이 주도하는 문화제국주의, 오리엔탈리즘, 생명복제 문제 및 가상(사이버) 세계의 팽창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대응해야 한다.

국가정부, 기업, 교육기관 등 모든 개체들이 세계화 시대와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무서운 각오로 구조조정을 하고 있으며, 세계 경영 능력을 배양하고 있다. 한국에서 가장 세계화에 대해서 피동적이며, 세계화의 무풍지대라고 할 수 있는 곳이 개신 교회이다. 이제 한국교회도 세계화 시대에 부응하는 지적, 영적, 사역적, 조직적 영역에서의 선명성 제고와 더불어서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세계 환경은 엄청난 변화를 겪어 왔는데, 한국교회는 여전히 100년 전의 전통적인 틀과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전통적 기복신앙과 개인주의 영성 및 성직자 중심주의는 여전히 전하여, 교회 내에 전문 평신도 인력들은 교육과 훈련을 통해 충분히 사역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세계화 시대에 교회는 지구적으로 발생하는 총체적이고 복합적인 문제에 대해 효과적 대응하기 위해서는 세계 교회의 실질적 리더로 부상하고 있는 한국교

회의 총체적 패러다임의 전환이 시급하다.

마지막으로 세계교회가 연대해야 한다. 지금 세계는 지구적이며 총체적인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세계교회의 연합을 통해 서구물질 문명과 이슬람 종교문명의 심화되는 대립구도를 극복하고 마지막 남은 종족 집단을 섬기고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주님의 재림의 길을 예비해야 할 것이다. 마24:14절의 성경의 약속대로 모든 민족에 복음이 증거될 때 주님은 재림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Arnold Toynbee, Civilization on Trial, 1948.

Bassam Tibi, The Challenge of Fundamentalism,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8, p. 16.

Bassam Tibi, The Change of Fundamentalism, 1998, pp.16-17.

Ernest Gellner, Nations and nationalism, Oxford: Blackwell, 1983.

Mark Juergensmeyer, The New Cold War? Religious nationalism Confronts the Secular State,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3, p. 1

V.V. Barthold, Panislamism - Complete Works, Vol.4, Moscow, p. 402. (in Russian).

=====

**약력 :**

IVF 활동, 소아시아 선교사, 소아시아 갈라디아 교회 개척

영국 ICHTHUS Network Intensive Program 수료

아세아연합신학교(ACTS) 강사, 고려대, 서울대 강사

한국전문인선교협의회(KAT) 회장 역임, 선교한국(MK) 실행위원,

미전도종족입양운동본부(AAP) 실행위원,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 실행위원, InterCP 본부장, 한동대 교수